

순창황국 1호 하반기 본격 생산

자연발효 전통메주서 분리 '우수 균주' ... 일본산 수입 곰팡이 대체할 대항마로 부상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대표이사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순창황국1호(Aspergillus oryzae SRCM102021) 균주를 하반기부터 생산한다고 밝혔다.

순창황국 1호 균주는 자연발효 전통메주에서 분리한 균주로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황국균(Aspergillus oryzae)으로 분류됐다. 황국 1호는 현재 전통장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류 주원료인 콩 단백질과 쌀속 탄수화물 분해능력이 우수한 균주다.

순창황국 1호는 수입곰팡이를 국내산 곰팡이로 대체하기 위해 진흥원에서 야심 차게 개발한 황국균으로, 우수한 발효능 뿐만 아니라 항고지혈, 항당뇨 활성 또한 존재해 고부

가까지 기능성물질 생산도 가능해졌다.

황국 1호는 올 7월부터 국내 최고의 종균참가제 생산기지로 건립된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의 고상발효시스템을 통해 본격 종균제품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특히 GMP나 HACCP 인증 등 식약처 인증제도도 취득해 제품의 신뢰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황국1호 균주는 전통장류제조기업에서 적용, 평가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 유통되는 황국균에 비해 당화력이 매우 뛰어나고 풍미도 뛰어나다는 관련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어 장류, 발효주, 발효식초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적 생산을 위한 종균으로 활용이 매우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기업에서 사용 중

인 황국균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된 균주를 수입하거나 기술협약을 통해 국내에 들여와 생산·유통되고 있어 이번 황국1호 생산이 수입 곰팡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숙주 이사장은 "순창황국 1호 생산을 시작으로 백국, 홍국, 효모, 고초균, 유산균, 초산균 등 발효식품제조에 이용되는 발효미생물을 확대 생산할 계획이다"이며 "순창로차 발효종균을 국내 6,000여 전통발효식품 기업에게 보급하여 수입미생물을 하루 빨리 국내미생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급과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와 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제5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오는 18일 안숙선 명창의 여정(남원예촌)에서 개최된다.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개최

18일 남원예촌서 개최... 12명 본선 진출

남원시와 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제5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오는 18일 안숙선 명창의 여정(남원예촌)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노년기를 개성적인 자아 실현의 기회로 삼아 자기표현과 사회 참여 욕구를 적극 유도해 신노년 문화를 주도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4월 18일까지 본선 진출 12명이 확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4명이 접수했으며, 1등(대상)은 250만원, 2등(금상) 100만원, 3등(은상) 70

만원, 4등(동상) 50만원, 특별상 2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그 외 본선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 10만원이 지급된다.

대회는 한상권 KBS 아나운서가 단독 진행하며, 오후 1시 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본행사, 축하공연, 고별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남원시는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활기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노년기 인생 이모작의 기회가 되고 이웃을 위한 봉사, 사회공헌 등 유익한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뜻 깊은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지역 소식통

오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사전 교육

임실군이 특성화학교인 오수고와 공동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하기로 지난 달 14일 업무협약에 따라 13일부터 사전교육을 시작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7~9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12회)을 추진하기 전, 5~6월 9일에 걸쳐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오수고등학교 취업반 학생들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을 하고 오수고는 농기계 전문가들에게 특수용접 교육을 한다.

영농현장에서는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 관리가 미흡하고 고장 발생 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관내 공업계 특성화학교인 오수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수한 용접기술을 접목해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 상호 간의 기술교류로 공동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순창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

순창군이 공공기관 내 회의, 행사 등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실천운동을 시행한다.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 사용 억제 범 국민 운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까지 실과원소와 읍·면, 공공기관 등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청사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나 회의 등에서 일회용품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순창군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라고 써 붙인 배너를 비치해 청사를 오가는 군민과 공무원 등 군민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옥정호 둘레길 '기반 시설 정비작업' 추진

'옥정호 물안개길' 명칭 통일... 오늘부터 예초작업·안전시설 설치

임실군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전라북도의 보물 옥정호 둘레길을 더욱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간다.

군은 옥정호 둘레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 시설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옥정호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은 이미 조성된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과 둘레길 등 50.6km 구간과 현재 만들고 있는 물문화 둘레길 등 탐방로를 통합해 '옥정호 물안개길'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다.

구간별로 테마를 정해 코스를 나누어 탐방객들이 쉽게 기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둘레길의 체계적인 길 안내를 위하여 노후화되고 파손된 방향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시설물 교체를 추진한다.

이어 17일부터는 물안개길(12km)과 마실길(24km) 전체 구간 예초작업과 초화류 식재 구역 제조작업을 시행하여 둘레길을 찾는 이용객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위험 구간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작업을 통하여 둘레길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군은 옥정호 둘레길 환경정비를 통해 옥정호를 대표적인 명품 관광지로 굳혀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지와 리플릿

제작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옥정호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옥정호 둘레길인 물안개길과 마실길은 덕치면의 삼진강 길과 함께 전북 1000리길에 포함된 구간이다.

전북 1000리길은 도내 14개 시군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가치, 이야기가 있는 길을 염선해 선정된다.

전북 1000리길에 포함된 이들 세 곳의 길을 완주하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해 인증서와 완주기념품을 받는 소소한 재미도 즐길 수 있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00리길 수첩 수령 후 각 코스 지정지점 우체통에 비치된 도장을 찍어 임실군 옥정호힐링과에 제출하면 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시농기센터, 봄철 농촌 일손돕기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이번 봉사활동 대상은 주생의 방울토마토 1농가와 아영의 포도 3농가, 방울토마토 농가는 봄철 일손 부족으로 수확 시기를 놓쳐 수확을 포기한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수확을 도움으로 농사를 망치지 않을 수 있어 안도하였다.

40여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선배 지도사로부터 작물별 간단한 이론교육도 받고, 방울토마토 유인·수확 및 포도 순지르기 등을 직접 하며 농촌의 일손도 돕고 체험으로 체득해 농업인을 이해하고 지도능력 또한 배양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정진 농촌진흥과장은 농업인과 소통하고 하나되는 마음으로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번기 일손돕기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실군, 관광두레 신규주민 사업체 모집... 내달 25일까지

임실군이 지역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25일까지 2021년 임실군 관광두레 신규 주민 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군은 올해 처음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으로, 공모 대상 주민사업체는 관광 분야 창업을 계획하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이다.

지역별로 1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신규 발굴한 후, 최종 선발되는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체는 성장단계(예비·초기·성장)에 따라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관광공사 문체부, 관광두레 또는 임실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